

보도시점 2026. 6. 3.(수) 11:00  
6. 4.(목) 조간

배포 2026. 6. 2.(화) 14:00

## ‘Bench to Field’ 민관학 협력으로 실현하는 반려동물 건강 100세 시대

- 정부·산업체·학계·임상 전문가 모여 공공 주도의 반려동물 질병 예찰·연구 체계 구축 및 만성질환·재생의료 분야 연구 확대 등 논의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는 5월 26일(화) 경북 김천 소재 검역본부에서 ‘반려동물 분야별 협의체’를 발족하고, 반려동물 질병 관련 최신 연구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연구에 현장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관련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의 고령화로 인한 만성 및 비감염성 질환\*이 증가하는 등 질병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다. 하지만, 검역본부에서 2025년 수행한 연구 과제 186개 중 반려동물 관련 과제는 26개(14%)로 대부분의 동물 연구가 산업동물에 집중되어 있고, 관련 연구 기능 또한 분산되어 있는 상황이다.

\* 비감염성 질환: 동물 간 전염되지 않으며 유전·노화·영양·환경적 요인 등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종양, 대사성 질환(당뇨병, 비만) 등이 있음

이에, 검역본부는 올해 1월 바이러스질환과 내외 반려동물 감염병 및 비감염성 질환 연구, 생체자원은행 운영 기반 마련, 즐기세포 특성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한 ‘반려동물질환연구실’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체 및 학계 등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반려동물 질병 연구를 더욱 체계화하기 위해 반려동물 분야별 협의체를 발족했다.

반려동물 분야별 협의체는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 산업체 관계자, 학계 및 임상 전문가 등 약 20명 규모로 구성되었으며, 이번 1차 회의에서는 검역본부의 ‘반려동물 연구 추진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와 향후 연구 방향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한 종합 토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주제 발표에서는 신설된 반려동물질환연구실 운영 현황과 함께 △법정·신종 감염병에 대한 능동적인 감시체계 구축과 질병 데이터 기반 발생 예측 시스템 도입, △국가표준실험실 운영을 통한 진단 고도화, △반려동물 노화 관련 질병 기전 규명 및 줄기세포 치료기술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등 미래 의료 분야 연구를 포함한 향후 국가 수준의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방안이 소개되었다.

이어진 주제별 토의에서는 일회성 연구로 인해 제한되었던 반려동물 질병 예찰과 관련하여 민간 동물병원, 대학과 연계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함께 국가 단위 질병 데이터 축적 및 활용 체계 마련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또한, 국가기관에서 진료 행위와 질병명을 국내 임상 환경에 맞게 표준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반려동물 의료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아울러, 반려동물의 혈액, 조직, 세포 등에서 유래한 생체 시료와 유전정보를 수집하는 바이오뱅크의 경우, 민간 및 학계의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기반인 만큼 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과, 첨단 재생의료로 주목받고 있는 줄기세포 기반 치료기술의 안전성 확보 및 활용 기준 마련 필요성 등도 논의되었다. 또한, 국산 반려동물 백신 개발 기반 마련을 위해 현장의 바이러스 역학 데이터와 병원체 정보를 국가 차원에서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검역본부는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향후 연구 기획 단계에 반영하고 반려동물질환연구실을 중심으로 감염병 연구와 질병 진단을 위한 과학적 데이터 구축, 반려동물 생체자원 축적과 연구자원 활용 등 연구 기반 확충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검역본부 최정록 본부장은 “이번 협의체는 반려동물 질병 연구와 정책, 현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첫걸음”이라며, “검역본부는 민·관·학과 긴밀히 협력하여 반려동물 질병 대응 연구 체계를 고도화하고,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건강하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농림축산검역본부 바이러스질병과	책임자	과 장	김재명 (054-912-0784)
		담당자	연구관	김영옥 (054-912-0785)